

1920년 창덕궁 내전 일곽의 재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nstruction of *Naejeon* Area at *Changdeokgung* Palace
in 1920

우 동 선*

Woo, Don-Son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기 세 황

Kee, Se-Hwang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Abstract

Naejeon area at *Changdeokgung* Palace means the areas of *Huijeongdang* and *Daejojeon* area. *Huijeongdang* or Hall of Brilliant Rule is made for the king, and *Daejojeon* or Hall of Great Creation is made for the queen. These areas were located nearly and repeatedly burned down and rebuilt several times together, but their forms were largely unchanged. However in 1920, they rebuilt in a very different wa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construction plans, progress and completion of *Naejeon* area's rebuilding. They were reconstructed into eclectic structures as the exteriors were built using basic materials from *Gyeongbokgung* Palace. So they have traditional-looking appearances, but the interiors consisted of modern equipments and were built by applying foreign style construction techniques. The main floored room of *Daejojeon* and the area of *Huijeongdang* were built in standing style by installing radiators and French furnitures. Also, the porch, corridor, storage space and veranda were constructed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construction. After the reconstruction, there were changes in the usage of some spaces. *Huijeongdang* functioned only for *Alhyeonso* or audience chamber rather than *Pyeongjeon* or state hall. New organizations created by the Japanese such as *Chansil* or secretaries office and the Chief secretary's office were included in *Naejeon* area.

주제어 : 창덕궁, 내전 일곽, 회정당, 대조전, 1920년, 외관, 실내, 재건, 입식, 절충식, 메이지궁전, 일본, 프랑스, 중국

Keywords: *Changdeokgung* Palace, *Naejeon*, Inner Halls, *Huijeongdang*, *Daejojeon*, 1920, exterior, interior, reconstruction, standing style, eclectic, *Meiji* Palace, Japan, France, China

1. 서 론

창덕궁의 내전(內殿) 일곽은, 회정당·대조전 일곽을 가리키며, 흥복헌, 경훈각, 함원전 등의 부속 전각을 포함한다. 회정당 일곽은 편전이자 국왕의 거처였고, 대조전 일곽은 국왕과 왕비의 침전이었다. 회정당·대조전 일곽은, 남북으로 인접해 있었기에 화재 시에 함께 피해를 입고는 하였는데, 1592년 임진왜란, 1623년 인조반정, 1833년과 1917년에 크게 화재를 겪고 재건되었다.¹⁾

20세기 이전까지 내전 일곽의 중요한 변화로는, 17세기 무렵 회정당이 편전으로 전용됨에 따라 전돌 바닥의 입식 구조에서 마룻바닥인 좌식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²⁾

이 논문은 기세황·우동선, 「1920년 창덕궁 내전 일곽의 재건」, 『한국건축역사학회 2013년 추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3년 11월, pp.143-152를, 한국건축역사학회 논문투고 및 편집규정에 맞추어 정정 가필한 것이다.

1) 창덕궁의 재건에 관한 기록으로 「창덕궁수리도감의궤」(1647)와 「창덕궁영건도감의궤」(1843) 등이 있다.

2) 김동욱, 「조선시대 창덕궁 회정당의 편전 전용에 대하여」, 『건축역사연구』 제3권 제1호, 서울: 한국건축역사학회, 1994년 6월, pp.17-18

* Corresponding Author : woods@karts.ac.kr

을 꼽을 수 있다. 1834년 재건 당시에는 그 규모와 구조, 형태를 화재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였고, 지붕의 높이, 계단의 개수 등에서만 변화가 있었다.³⁾ 이밖에 20세기 이전까지 창덕궁 내전 일곽에서 외형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기에, 내전은 화재 후 재건할 때마다 대체로 원래와 같은 모습을 재현해왔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⁴⁾



Fig.1 Fired Naejeon Area in 1917 (Source: <Maeil-shinbo> November 11, 1917)

그러나 1917년의 화재⁵⁾(<Fig.1>) 후 창덕궁 내전 일곽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이때의 변화에 관해서는 선행연구들⁶⁾이 축적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대체로 서양 건축의 영향에 주목한 것들이어서, 그 밖의 영향과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20년 창덕궁 내전 일곽의 재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 있다. 이 연구의 방법은 2013년의 3개월간에 진행한 현장조사

3) 정은경, 「조선 후기 궁궐 정침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67, p.71

4) 김동욱, 앞의 논문, p.9

5) 『순종실록 부록』 8권, 1917년 11월 10일(양력) : 대조전에 화재가 발생하다 - 대조전(大造殿)에서 오후 5시에 불이 났다. 불은 대조전 서운돌(西溫突)에 연결한 나인 [內人] 들의 경의실(更衣室)에서 일어나 내전(內殿)의 전부를 태워버렸다. 【대조전(大造殿), 흥복헌(興福軒), 통명문(通明門), 양심합(養心閣), 장순문(莊順門), 회정당(熙政堂), 찬시실(贊侍室), 내전(內殿), 창고(倉庫), 경훈각(景薰閣), 정광루(澄光樓), 옥화당(玉華堂), 정묵당(靜默堂), 요화당(曜華堂), 요취문(曜暉門), 함광문(含光門)이다.】

6) 한경희, 「구한말 궁궐건축 내부의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김정동, 「개화기 우리 궁궐에 이입된 서양요소들-창덕궁의 회정당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년 5월, pp.202-203; 한경수·박진홍·한동수, 「20세기 초 서양문물의 도입과 궁궐 정침의 공간 변화-창덕궁 회정당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31권 제1호, 서울; 대한건축학회, 2011년 4월, pp.153-154; 박순관, 「일제강점기 궁궐건축의 근대적 변형에 관한 연구-창덕궁 회정당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와, 사진과 도면,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의 기사들(<Tab.1>)과 기타 기록들⁷⁾을 검토하는 문헌연구이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창덕궁 내전 일곽 재건축의 계획과 진행 과정을 살피고 완공 모습을 추정하고자 한다.

2. 창덕궁 내전 일곽의 재건 과정

2-1. 내전 일곽의 재건 관련 신문기사의 검토

Tab.1 Related articles in the newspapers

date	title
1917.12.20	신축될 내전은 역시 조선식 궁전으로
1917.12.26	내전 재영의 개기식, 본공사는 명년 해빙 후부터 진행
1918. 1.19	내전 정초식, 십팔일 저녁에
1918. 1.24	내전의 상량식, 이십이일 오후에
1918.11.10	대조전 염상한 지 일주년, 진행되는 복구공사
1919. 4.29	대조전의 준공될 기한 후년 봄 삼사월께
1920. 1.16	도리 단청 시가(詩歌)의 원(園) 창덕궁의 신조전 (一)
1920. 1.17	도리 단청 시가의 원 창덕궁의 신조전 (二)
1920. 1.18	신축 중의 창덕궁 어전
1920. 1.20	도리 단청 시가의 원 창덕궁의 신조전 (三)
1920. 4. 7	단청 화려한 신내전, 시월에는 필역될 내전 이룩, 역비는 육십만 원이 들었다
1920. 7. 2	창덕궁 회정당 벽화는 지금 해장 김규진씨가 그리는 중이다
1920. 7. 8	반도의 정재량석(精材良石)을 집취하여 룬환(輪奐)의 미를 극한 창덕궁 신내전, 저축하는 예산을 지게 되면 실로 엄청난 억도 될 만하다, 준공은 금년 시월 예정
1920.10.13	조선고식에 불국식(佛國式)을 가미한 창덕궁 내 대조전, 오는 십사오일 쯤에 대체 준공, 이왕전하게옵서 어람하시고 만족히 여기심을 배찰하였다
1920.11.19	준성된 창덕궁 대조전
1921. 1.21	이왕전하게옵서 불원에 이어하실 신어전, 총 경비 칠십삼만원과 삼개년의 일자를 비(費)하여 낙성된 대건축, 신조선식의 이상적 전각
1921. 2. 3	이왕 동비 양전하 대조전에 이어하심
1922. 4.26	근현의(觀見儀)를 행하옵실 대조전 배관기

<Tab.1>은 창덕궁 내전 일곽의 재건과 관련한 신문⁸⁾

7) 한국학중앙연구원, 『근대건축도면집』 (도면편, 해설편),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9; 콘도 시로스케, 이인숙 옮김, 『대한제국 황실 비사』, 서울; 이마고, 2007; 『순종실록 부록』 등

8) 1920년 4월 7일자 기사는 <동아일보>이고, 그 외에는 모두 <매일신보>이었다. 이하의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한자는 한글로, 고어

기사들의 제목을 날짜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 기사들을 통해서 공사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진행 과정, 완공 모습을 추리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2-2.부터 2-5.까지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2-2. 재건 공사에서 건축 양식과 설비

1920년에 재건된 창덕궁 내전 일곽은 절충식 전각이었고, 이에 관한 자료로 <Tab.1>의 기사 4건을 찾을 수 있다. 화재 직후인 1917년 12월의 기사에 의하면, ‘양제로 건축되리라는 말이 있으나 양제로 건축함은 창덕궁안의 다른 건축물과 서로 대하여 조화가 고르지 못한 고로 자연히 이전대로 조선식의 궁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목하 총독부 기사의 손에서 조사 설계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⁹⁾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20년 4월에, ‘전임으로 감독을 하여오든 기사 김륜구(金倫求) 씨’의 인터뷰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건축물은 전부 구식으로 전(前) 집과 비하여 대동소이 할 것이요 침전은 될 수 있는 대로는 온돌을 폐지하고 석탄이나 가스를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전하게 당하여는 조선식 온돌이 제일 편하옵시겠기에 침전은 역시 온돌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내부 장식은 전부 서양식으로 하겠지만 아무쪼록은 전하의 취미의 맞으시도록 조심’하였다. 따라서 김윤구는, 재건공사가 건축물의 조화 이외에도 순종의 취향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⁰⁾ 온돌을 폐지하려고 한 것은 화재의 위험 때문으로, ‘온돌이 필요치 아니한 곳’, 즉 ‘왕 전하와 비 전하의 기거하시는 방 외에는 전부 증기난로 장치를 참고하여 대부분 개량’하였다.¹¹⁾

또한 ‘이왕직 영선과(李王職 營繕課)의 기사들이 특별히 고심한 점은 방화 장치와 배수 공사’였는데, ‘주요한 건축물 사이에는 견고벽돌의 방화벽을 쌓아올리고 방화문을 달게’하였으며 ‘배수공사에도 지하 15척에 직경 3척의 철관을 묻어서 편리하고 위생되고 안전하도록 근대식 설비를 하였다. ‘이번 공사에 특별히 힘쓴 것은 내전 부근의 하수도를 『콩크리트』 관으로 물이 순하게 빠지도록 포설하여 위생에 편리하게 하였’다.¹²⁾

표기는 띄어쓰기, 삽표 등 현대 맞춤법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9) <매일신보> 1917년 12월 20일자 기사, <Tab.1>

10) <동아일보> 1920년 4월 7일자 기사, <Tab.1>

11) <매일신보> 1918년 11월 10일자, 1920년 1월 16일자 기사, <Tab.1>

12) <매일신보> 1918년 11월 10일자, 1920년 1월 16일자 기사, <Tab.1>

이밖에 1918년부터 영선과장을 맡았던 곤도 시로스케 [權藤四郎介]는 ‘전각의 양식과 구조는 화재 전 모습과 똑같이 하며 내부 장식, 설비 및 채광, 통풍 및 배수 방식은 최신식을 취하여 조선 특유의 건축미를 현대적 기술로 발휘해보기로 하였다’고 평가하였다.¹³⁾

2-3. 재건 공사의 재료

주재료에 관해서는 화재 직후에 ‘창덕궁 내전의 다시 건축할 것은 경북공안의 강녕전과 및 교태전으로써 이에 충용하기로 의론되었는데 (중략) 그것은 이전 총독부의 소관으로 붙여서 목하 국유가 되었으므로 총독부 당사자의 교섭’을 통해 결정하였다.¹⁴⁾

경복궁의 부재를 사용하게 된 배경으로는 ‘마침 구유전린 중으로 배편이 부족하고 또 이곳에 쓰는 재목은 물론 일체의 건축 재료를 일본에서 가져옴으로 대단 곤란하였는데 그렇다고 조선 전토 언 곳 물론 고재목 있는 곳을 수색하나 또한 소용될 만한 것은 없는’ 와중에 ‘마침 경북궁에서 양여를 받은 전당은 소실한 전당과 한 치한 폰도 틀림이 없는 전당이였으므로 다소간 소부분을 개량하여도 족할만한 대단히 좋은 형편’이며 그 부재들을 ‘가격으로 볼 것 같으면 전혀 말로도 읽을 수 없는 막대한 금액에 달할 터’라고 전한다.¹⁵⁾ 즉, 조선에는 적당한 목재가 없었고 제1차 세계대전 중이라 일본의 목재를 비롯한 건축 재료를 가져오기에는 배편이 부족하였는데 마침 경북궁의 전각이 형태적으로 유사했고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⁶⁾

결과적으로 ‘원 경북궁 만경전의 재목은 경훈각의 건축 재료에 쓰고, 교태전의 재목은 대조진, 원 흥경전의 구제는 생과방, 원 강녕전의 구제는 회정당으로 하고, 그리고 현관은 원 연생전의 구제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 ‘부족한 재료는 전부 조선 소나무를 사용하였는데 약 삼천 주나 들었다.’¹⁷⁾

그 밖의 재료는 부분적으로 입찰을 통해 공급하였으며,¹⁸⁾ ‘다른 공사와 달라서 일체 도금을 주면 재료에 상관성이 있을까 염려되어 재료는 이왕직에서 선택하여 주고

13) 곤도 시로스케, 앞의 책, p.248

14) <매일신보> 1917년 12월 20일자 기사, <Tab.1>

15) <매일신보> 1920년 7월 8일자 기사, <Tab.1>

16) 한일병합 이후 일제는 경북궁의 전(殿)·당(堂)·누각 등 4,000여칸의 건물을 헐어서 민간에 방매(放賣)하거나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북궁의 상당부분을 훼손하였다. 우동선 외 7인, 『궁궐의 눈물, 백 년의 침묵』, 파주; 효형출판, 2009

17) <매일신보> 1920년 1월 16일자 기사, <Tab.1>

18) 곤도 시로스케, 앞의 책, p.249

공사만 도급을 주는 등 여러 방면에 신중히 주의'하였다.¹⁹⁾ 창덕궁 내전 공사에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 재료와 서양식 재료를 혼용하는 절충식 전각이었기에, 그 선택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2-4. 재건 공사의 배치와 면적

화재 직후에 '전각과 전각의 사이는 복도로서 통로를 설비할' 계획이 있었다.²⁰⁾ 평면상에서 '내전 건축의 배치는 얼른 말하자면 목자와 같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뒤에 대조전, 그 앞에 대조전 부속채, 그 앞에 정현관 채가 되고 동편은 복도로 둘러서 각 전각의 교통을 편케 하였으며 이전 내전문은 폐하고 인정전과 같이 현관제도로 고친 것이 이번의 새 시설이라'고 전한다.²¹⁾ 이는 1907년 개조된 인정전 일곽과 같은 내부 동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면의 현관으로 입장해 좌우의 복도를 통과하여 전각에 이르는 방식이다.²²⁾ 그 결과 창덕궁 내전 일곽은 입구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복도를 거쳐 모든 곳이 통하며, 다시 원위치로 나올 수 있는 구성을 갖게 되었다.²³⁾

'총 평수는 그 전에 칠백오십평이던 것을 이번에는 구백이십평으로 확대'되었는데 '전체가 대개 늘었지만은 회정당 자리에 옮겨서 서울 강녕전이 회정당보다 특별이 큰 것이 제일 현저한' 이유이며 '순 조선식 건축물 중에 아마 가장 큰 건물이라 할 만하니 석왕사²⁴⁾의 본전보다도 오히려 크다'라고 전한다.²⁵⁾ 또한 향(向)에 있어서는 '전에는 지상(地相)이라던가 방위(方位) 등에 구애하여

각 궁전의 방향을 다르게 하였던 배치를 이번에는 개량하여 전부 남향으로' 바꾸었다.²⁶⁾

2-5. 재건 공사의 진행과 단계, 인물, 비용

Tab.2 Process of construction

date	process of construction
1917년 12월 25일	개기식, 주전과원 진행
1918년 1월 18일	정초식
1918년 1월 22일	입주식과 상량식
1919년 1월 21일-4월	고종의 승하로 인한 공사 중단
1920년 10월 말	완공 후 낙성식

재건 공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기록으로는 신문 기사를 포함한 8건이 있다. 이 기록들을 요약하면 <Tab.2>와 같다. 1917년 12월 25일 개기식을 시작하여 고종의 승하로 잠시 중단하였다가 약 3년 만에 완공하였다. 완공 시기는 대략 1920년 10월 말이라고 추정된다.

Tab.3 Step, operation, and engineer of construction

step	operation of construction ²⁷⁾	engineer ²⁸⁾
제1기	내전과 그 부근에 딸린 채를 건축	심의석 ²⁹⁾
제2기	강녕전을 옮기는 회정당 역사와 그 부속된 집을 건축	한성원
제3기	외현관과 장시사(掌侍司)와 내빈 휴게소 등을 건축	김천우

공사는 <Tab.3>과 같이 총 3단계로 나누어져 각각 담당 건축기사들이 배정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조선인들이었다. 반면 '양식으로 할 것은 일본인 좌동옹태랑 『佐瞳熊太郎』에게, 석재 만드는 것은 소야웅삼 『小野熊三』에게, 기관실은 고도주우 『高島周祐』³⁰⁾에게, 온실은 삼산구 『杉山久』 등에게 도급을 명하여 점차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전한다.³¹⁾ 즉 조선식을 따르기로 한 건

19) <매일신보> 1918년 11월 10일자 기사, <Tab.1>
 20) <매일신보> 1917년 12월 26일자 기사, <Tab.1>
 21) <매일신보> 1918년 11월 10일자 기사, <Tab.1>
 22) 우동선·기세황, 「1908년 인정전 일곽의 개조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23권 제2호, 서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4년 4월, pp.53-64
 23) 이러한 공간 구성은 일본의 쇼인즈쿠리[書院造]를 연상시키는 점이 있다. 도쿄 메이지궁전의 알현소 일곽은 교토 고쇼[御所] 시신덴[紫宸殿]의 구성을 받아들여서, 헤이안 시대 신덴즈쿠리[寢殿造]의 권위를 차용하였다. 그런데 이 알현소는 내부를 쇼인즈쿠리의 요소인 격천정으로 마감하여, 두 양식의 채용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金行信輔, 「王權의復古意識—寢殿造의近世·近代」, 鈴木博之編, 『復元思想の社會史』, 東京: 建築資料研究社, 2006, pp.86-95) 이 알현소 일곽이 1908년 인정전 일곽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 학계는 신덴즈쿠리가 근세에 들어서 변질된 것이 쇼인즈쿠리라고 보기 때문에, 메이지궁전에서 양자의 구별과 20세기 창덕궁에 미친 그것들의 영향 관계 등에 관해서는 추후에 심화연구가 필요하다.
 24) 함경남도 원산시의 석왕사(釋王寺)로 추정된다. 석왕사는 고려 말에 창건되었고, 총 건물이 53동에 달하던 대규모 사찰이었다.
 25) <매일신보> 1918년 11월 10일자, 1920년 1월 16일자 기사, <Tab.1>

26) <매일신보> 1920년 1월 16일자 기사, <Tab.1>
 27) <매일신보> 1918년 11월 10일자 기사, <Tab.1>
 28) <매일신보> 1920년 7월 8일자 기사, <Tab.1>
 29) 심의석(沈宜錫): 1854-1924. 1887년 배재학당을 건축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1890년에는 시병원(施病院)을 건립하였다. 1895년 관직에 들어가 궁내부 소속 궁중 건축 전문기사로 일했다. 우대성·박언곤, 「한국의 근대건축의 기수 심의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계획계), 제16권 제2호, 1996년 10월, pp.159-162
 30) 다카시마 슈스케[高島周祐]: 경성에서 토목건축청부업자로 활동하던 일본인이다. 토목건축협회의 간사를 역임했으며 1910년대에는 전기업, 자전거 제작업 등을 겸하였고 경성 상업회의소의 평의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1) <매일신보> 1920년 7월 8일자 기사매일신보, <Tab.1>

물의 외관은 조선인 기사에게 맡겼고, 신식 설비와 양식은 일본인 기사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건축기사는 임길송 『林吉松』 씨 승우갑태랑 『勝又甲太郎』 씨 김윤구 『金倫求』³²⁾ 씨의 삼씨’가 있었다.³³⁾ 또한 당시 영선과장이었던 다나카 센[田中遷], 총독부 토목국의 기사 이와이 초사부로[岩井長三郎]와 쿠니에다 히로시[國枝博]³⁴⁾가 참여하였으며, 전기장치에는 체신국의 기사인 오카모토 케이지로[岡本桂次郎]³⁵⁾를 위촉하여 설계의 방향을 정하였다고 한다.³⁶⁾

비용에 관한 기록은 신문기사를 포함하여 4건이 있다. ‘제목은 모두 총독부와 왕가에서 공급하고 예산에 들은 것은 공사뿐만 고로 처음에는 오십만 원이었던 것이 물가와 노동임금의 영향을 받아서 약 삼십만 원 내외의 부족’이 생겼다고 전한다.³⁷⁾ 이 외에 ‘건축비는 모든 재료를 제하고 약 팔십만 원’, ‘총 경비가 칠십삼만여 원’, ‘공사비 70만 원, 그밖에 관급 재료의 견적 가격 30만 원을 더하여 약 100만 원’³⁸⁾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재료비를 제외한 공사비로 약 70-80만 원이, 그 밖에 관급 재료의 견적 가격으로 약 3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6. 소결

32) 김윤구(金倫求): 1870-1940. 1907년 이전 내부(內部) 철도국에 근무하다가, 궁내부(宮內府) 영선사(營繕司)의 장을 거쳐 1910년 한일합방 때까지 내장원(內藏院) 토목과장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1937년까지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건축 분야 일을 맡아보았던 것으로 보이며 창덕궁 대조전(大造殿)을 새로 지을 때 큰 역할을 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33) <매일신보>의 1920년 1월 16일자 기사, <Tab.1>. 이 기사에는 승우갑태랑(勝又甲太郎)이 승우용태랑(勝又用太郎)으로 잘못 적혀 있다.

34) 이와이 초사부로[岩井長三郎]와 쿠니에다 히로시[國枝博]: 1910년 총독부 회계과 영선과로 출범 당시의 건축기사로 둘 다 도쿄제국대학 출신이다. 이와이는 영선과장으로써 1929년 사임할 때까지 20년간 조선총독부에서 일하였으며 1926년 경성부청(京城府廳) 건설 등에 참여하였다. 쿠니에다는 통감부시절부터 내한하여 탁지부건축소에서 활동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김대중·김순일, 『1905-1910년 내한한 일본인 건축기술자 압전오월만 국지박도변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9권 제8호, 서울: 대한건축학회, 1993년 8월, pp.103-113

35) 오카모토 케이지로[岡本桂次郎]: 도쿄제국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 후 일본에서 전화교환국에서 일했으며 도쿄우편전신학교 교수, 1895년 임시대만전신건설부기사, 경도전화국장을 거쳐 1905년 한국통신기관 인계를 위해 조선에 건너왔다. 공무주임, 통감부기사, 조선총독부 체신국 공무과장 겸 전기과장을 역임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6) 콘도 시로스케, 앞의 책, p.248

37) <매일신보> 1920년 1월 16일자 기사, <Tab.1>

38) <매일신보> 1920년 10월 13일자, 1921년 1월 21일자 기사, <Tab.1>, 콘도 시로스케, 앞의 책, p.248

이상에서 문헌 기록들과 현장 조사를 통해 창덕궁 내전 일곽 재건의 계획과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이렇하다. 건축 양식은 한·양·일 절충식으로, 근대식 설비를 갖추었으며 경복궁의 부재를 헐어다가 사용하였다. 평면 배치에 있어서는 이전에 없던 현관과 복도를 신설하여 눈 목(目)자를 이루었다. 내전은 750평에서 920평으로 확장하였다. 공사는 1917년 12월 25일 시작되어 1920년 10월 말 완공되었는데 그 과정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3. 창덕궁 내전 일곽의 완공

3-1. 창덕궁 내전 일곽의 전체 모습

‘외관은 불에 타기 전의 전각과 대략 같’으며 ‘대조전의 구조는 그 기초를 조선 고래의 건축법에 따라하고 또 내외의 장식은 불국식(佛國式), 즉 프랑스식을 가미하여 ‘매우 화미하고 가려하게’ 하였다.³⁹⁾ 또한 ‘내외의 신건축의 양식을 가입하여 참작해 지은 것’인데 이는 ‘어떠한 의미로 보면 그 전각이 백여 년 후의 사람들에게 그 전각을 지을 때에는 내선융화(內鮮融和)가 이만치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상상케도 할 것 같다’라고 하였다.⁴⁰⁾ 이 절충식 전각을 놓고, 조선 고래의 건축법, 불국식, 내외의 신건축, 내선융화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건물의 전체적인 풍격은 ‘화려하다는 것보다는 고아한 건물’이며, 이 건물에 대해 ‘이왕전하께옵서도 최근에 그 곳으로 산보하실 때에 마침 어람을 하시고 매우 만족히 여기’셨다고 전한다.⁴¹⁾

3-2. 대조전 일곽

대조전 공간의 용도는 <Tab.1>의 기사 4건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Fig.2 The royal bath tub

대조전의 ‘중앙에는 오십평 가량의 넓은 대청이 되어 그 곳에는 의자 탁자 등 실내 기구를 화려하게 장치’⁴²⁾하여 알현실로 사용했다. 알현실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기사⁴³⁾와 <Fig.3>를 살펴보면 편관 위에 붉은 카

39) <매일신보> 1921년 1월 21일자, 1920년 10월 13일자 기사, <Tab.1>

40) <매일신보> 1921년 1월 21일자 기사, <Tab.1>

41) <매일신보> 1921년 1월 21일자, 1920년 10월 13일자 기사, <Tab.1>

42) <매일신보> 1920년 1월 17일자 기사, <Tab.1>

벧을 깔고 화려한 의자와 탁자 등을 놓았으며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는 완전한 입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⁴⁾

‘평상시에 늘 기거하시는 방’은 대청 동측의 흥복헌을 가리킨다. 이 밖에 대조전 일곽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사들이 전하고 있다.

(흥복헌의) 오른쪽으로는 다시 이발실, 강습소, 교수실, 창고 등의 전각이 건조될 터이오, 뒤로 서재와 변소 등이 있고 왕전하의 침실의 오른쪽에 다시 비전하의 의복실, 화장실, 목욕실 등이 있으며 경훈각은 대조전 서북 높이 솟아있으니 이곳의 전하의 서재와 오락하시는 곳이라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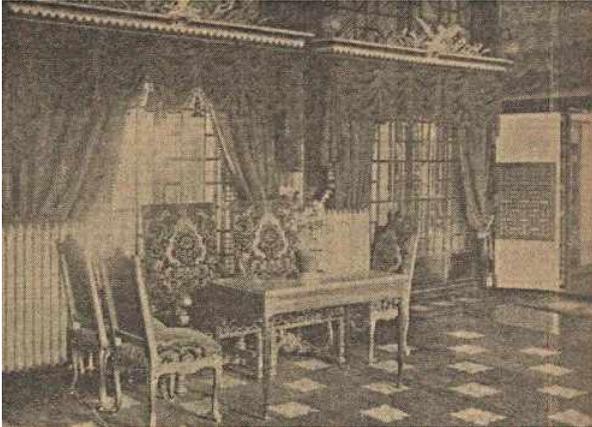


Fig.3 The audience room of *Daejojeon*
(Source: <Maeil-shinbo> April 26, 1922)

(대조전의) 동편에는 흥복헌 서에는 경의실(更衣室), 퇴선실(退饜室), 화장실, 유희실이 있고 북편에는 어서재인 함원전이 있고⁴⁶⁾

대조전에 접속되어 정면의 석계를 근등(謹登)한 즉 당착(撞着)되되는 곳이 대청(大廳)이라 하는 광간(廣間)이오 기우측(其右側)이 흥복헌(興福軒)이라 하는 왕전하의 어거실(御居室)이며 좌편으로 관리각(觀理閣)이라 하는 비전하의 어거실이라 배청(拜聽)된다.⁴⁷⁾

이 기사들을 토대로 삼아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공간의

43) <매일신보> 1922년 4월 26일자, <Tab.1>: ‘(전략) (대조전의 대청은) 십간가량의 광간(廣間)으로 상(床)은 전부 정교한 편판(片板)이오 그우에는 흥장미색의 융낙(絨氈)을 부(敷)하얏스며 앙상(仰上)은 극채색(極彩色)의 천정(天井), 좌우난간에는 봉래도(蓬萊圖)의 벽화이니 벽화에는 봉황의 조각이 시설(施設)되야있다. 정면에는 황금화(黃金柱)의 당초모양(唐草模樣)의 의자(椅子)가 이각각양색채중(二脚各樣色彩中)에 찬연(燦然)히 광휘(光輝)를 발(發)하야 쌍안(雙眼)을 현황(眩煌)케 할 뿐이오 기외(其外)에는 웅대(雄大)한 체경(體鏡)과 금난(錦欄)의 장(帳)이 유(有)하며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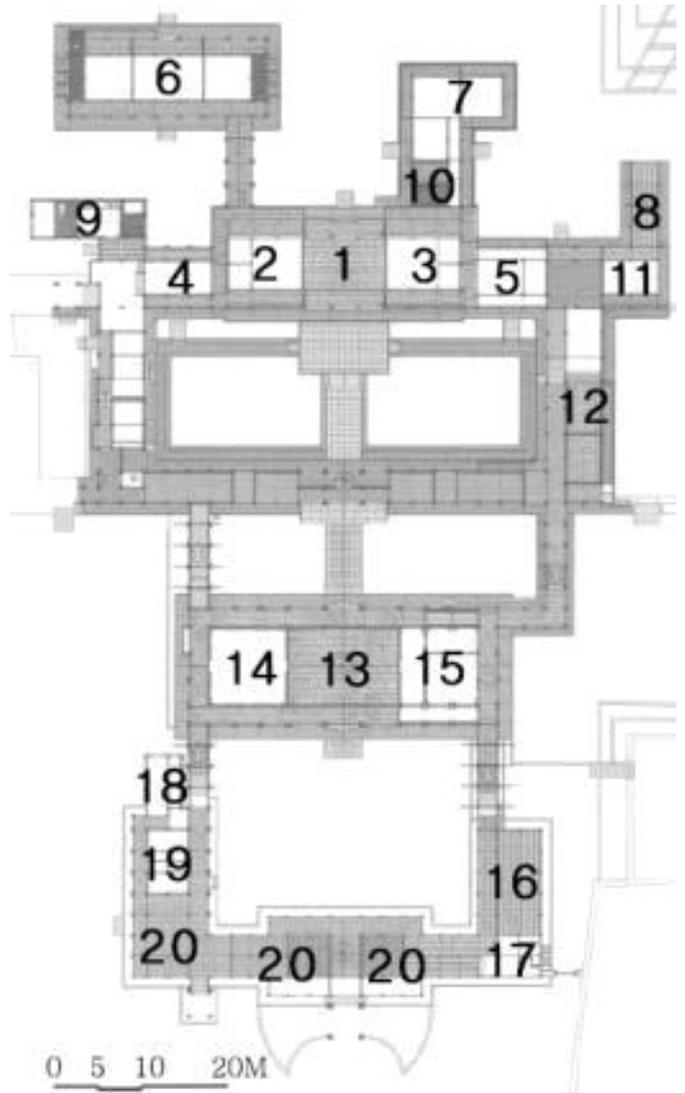
44) 근대기 궁궐에서 나타난, 좌식에서 입식으로의 변화는 원래부터 입식이었던 의식용 전각인 정전에서보다는 좌식을 위주로 하던 침전에서 두드러졌다. 이로써 침전 대청에서 이루어지던 각종 전통 의식들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조재모, 『궁궐, 조선을 말하다』, 서울: 아트북스, 2012, pp.243-244

45) <매일신보> 1920년 1월 17일자 기사, <Tab.1>

46) <매일신보> 1921년 1월 21일자 기사, <Tab.1>

47) <매일신보> 1922년 4월 26일자 기사, <Tab.1>

용도를 현재의 도면⁴⁸⁾ 위에 표기하면 <Fig.4>와 같다



- | | | | |
|----|----------------|----|----------------|
| 1 | 알현실 | 11 | 이발실 |
| 2 | 어거실 겸 어침실 (왕비) | 12 | 강습실, 교수실 |
| 3 | 어거실 겸 어침실 | 13 | 알현실 |
| 4 | 어거실(왕비) | 14 | 알현실 |
| 5 | 어거실 | 15 | 어거실 겸 어침실 |
| 6 | 서재, 오락실 | 16 | 휴게실 (내빈과 공전하) |
| 7 | 서재 | 17 | 욕실, 화장실 |
| 8 | 창고 | 18 | 욕실, 화장실 |
| 9 | 어욕실 | 19 | 숙직실 |
| 10 | 화장실 | 20 | 찬시사무실, 사장실, 식당 |

Fig.4 Use of the areas of *Huijeongdang* and *Daejojeon*

대청의 좌우에는 온돌을 놓은 좌식의 어(御)침실을 두고 있으며 그 북측에는 서재인 함원전과 경훈각이 있다. 대조전의 좌우에는 융경헌과 흥복헌이 있어 어(御)거실로 사용하였으며 융경헌 옆 서측에는 욕조와 세면대 등이 설치된 어(御)욕실(<Fig.2>)이 있다. 흥복헌 옆 동측

48) 『창덕궁 회정당 수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02, p.401

에는 이발실과 물품보관의 용도로 쓴 듯한 청향각이 있으며, 그 남측에는 강습소, 교수실 등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조전 동행각이 있다. 그 밖에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대조전 남행각과 서행각은, 화재 이전과 마찬가지로, 상궁들과 나인들이 대기하는 곳으로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등으로 쓰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3-3. 회정당 일곽

대조전과 ‘연(連)하여 낭하(廊下)와 접속(接續)한 회정당 『공식접견실』이 있다.⁴⁹⁾ 회정당의 당시 사진(<Fig.5>)을 살펴보면, 벽화를 배경에 두었고 대청 가운데 원형 테이블과 의자들을 놓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앙 알현실의) 좌우에는 양식실로 하여 좌에는 왕비전하의 알현실이 될 터이다’⁵⁰⁾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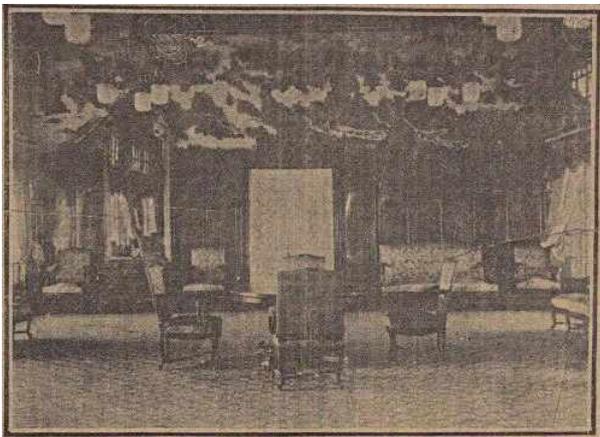


Fig.6 The audience room of Huijeongdang (Source: <Maeil-shinbo> February 5,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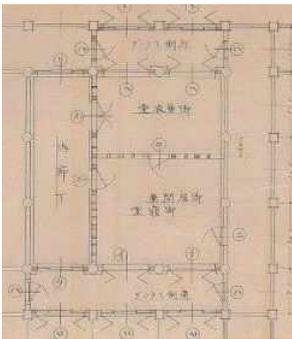


Fig.7 A part of Plan 058 (No.15 in Fig.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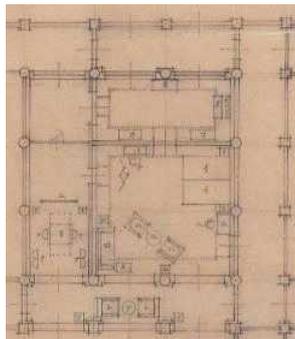


Fig.5 A part of Plan 059 (No.15 in Fig.4)

『근대건축도면집』에 수록된 도면 058⁵¹⁾(<Fig.6>)과 도면 059(<Fig.7>)는 회정당 오른쪽 부분을 나타낸 도

면인데, 그 구성이 다소 상이하다. 곧, 도면 059의 ‘어거간 겸 어침실’이 기둥에 맞추어 위쪽으로 넓어졌다. 이로써 도면 058과 도면 059는 어떤 공사의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도면 058(<Fig.6>)에는 ‘어거간 겸 어침실’, ‘어경의실’이라는 표기가 있어서, 이 부분이 국왕의 공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⁵²⁾

도면 059(<Fig.7>)는 ‘어거간 가구배치’를 위한 것인데, ‘어거간’이 침대, 탁자, 의자 등이 대조전의 어침실과는 달리 입식으로 꾸며져 있다. 이 공간에는 라디에이터가 설치된 흔적이 남아있다. 당시에는 난방을 위해 온돌과 라디에이터가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⁵³⁾, 이는 입식 공간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난방방식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Fig.8 A bathroom for night-duties (No.18 in Fig.4) Fig.9 A bath of Plan 086

회정당 일곽의 구성에 관해서는 아래 기사만이 이 전하고 있어서 각 공간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는 어려웠다.

(회정당의) 주위에는 일간이나 넓은 난간이 있고 정면에 넓은 뜰을 사이에 두고 현관에 면하였으니 현관으로 건너가면 좌우로 통하나니 내빈의 쉬는 집과 공전하의 쉬는 곳이 있고 세면소, 변소 등의 설비가 완전하다. 다시 왼편으로 낭하를 따라가면 사장실 『司長室』, 찬시사무실 『贊侍事務室』, 숙직실, 식당 등이 있고 찬시사무실 이웃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있으니 그 현관으로 나아가면 대현관 『大玄關』에 이른다.⁵⁴⁾

현장조사를 통해서 <Fig.4>의 18번에 위치한 ‘욕실’에서 장서각 소장의 도면 086번 「내전여관용 욕실, 찬시숙직용 욕실」과 동일한 욕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Fig.8>, <Fig.9>) 이 도면은 1917년 내전 일곽이 불에 타기 전 회정당 서쪽에 짓기 위해 그렸던 것이다. 도면에는 ‘風呂浴’이라고 적혀있다. 이를 ‘어욕실’의 욕조(<Fig.2>)와 비교하면, 이 욕조가 작고 협소하다. 그러므로 <Fig.4>의 18번은 찬시숙직용 욕실이라고 볼 수 있다. 욕실의 남측인 서행각(<Fig.4>의 19번)은 회정당 행각 중에서 유일하게 온돌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 19번

49) <매일신보>의 1922년 4월 26일자 기사, <Tab.1>

50) <매일신보> 1920년 1월 20일자 기사, <Tab.1>

51) 이 논문에서 ‘도면 000’라고 할 때, ‘000’은 장서각 소장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의 도면 번호를 따르는 것이다.

52) 한국학중앙연구원, 『근대건축도면집』(해설편), p.56

53) 박순관, 앞의 논문, p.40

54) <매일신보> 1920년 1월 20일자 기사, <Tab.1>

이 숙직실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 남측의 공간과 남행각의 공간들(<Fig.4>의 20번)은 숙직실과 현관과 이웃하고 있기에 찬시사무실, 혹은 사장실과 그 부속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동행각에는 마룻바닥에 커튼박스 와 샹들리에가 설치된 넓은 방이 있어 내빈과 공 전하의 휴게실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 밖에 ‘생과방(生菓房)과 식품저장소’가 있고, ‘대현관의 동북으로 비원 길로 통한 곳에 기관실(機關室)과 화부실(火夫室) 등이 있으니 기관실에는 아메리카제의 뽀이라(보일러)를 두 개 장치하였고 이는 난방장치에 사용하며 기관실과 기타 정원감독숙사, 여관실, 급사 등의 숙사’가 지어질 예정이었다.⁵⁵⁾ 현재 남아있는 보일러로는 <Fig.4>의 17번 화장실에 설치된 영국제품이 있다.

3-4. 내전 일곽의 가구

당시 창덕궁 내전 일곽에 배치되어 있던 가구들은 일부 그대로 제자리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대개 그 자리가 바뀌었다. 또 가구들은 파손되었거나 따로 보관되어 있다. 창덕궁 내전 일곽의 원래 가구 배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Fig.10. Chairs of Huijeongdang



Fig.11. Chinese furnitures of Huijeongdang



Fig.12 A mirror of Huijeongdang



Fig.13 A Chinese mirror of Daejojeon

현재 회정당의 알현실에 배치된 가구들은 대체로 프랑스 루이 14세, 15세, 16세 양식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55) <매일신보> 1920년 1월 20일자 기사, <Tab.1>



Fig.14 A plum blossom patterned chair of Huijeongdang



Fig.15 A plum blossom pattern of the chair

한다.⁵⁶⁾ 이 가구들은 <Fig.10>, <Fig.12>, <Fig.14>와 같이 곡선을 갖으며, 화려함이 과하지 않다. 이밖에 현재 회정당에는 <Fig.11>과 같이 중국식 가구들도 남아있다.⁵⁷⁾ 대조전 알현실의 체경(<Fig.13>)도 중국에서 수입했다고 한다.⁵⁸⁾

1890년대부터 일본인 가구제작자들이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했던 기록⁵⁹⁾이 있어서, 가구들이 모두 수입한 것인지는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오얏꽃’ 문양이 장식된 의자 등은 주문 제작인 것으로 보인다. (<Fig.14>, <Fig.15>) 거울이나 침대 등은 모두 수입한 물품인 것 같다. 외국산 가구는 어느 한 시대의 일정한 양식만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여러 양식들을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⁶⁰⁾ 이 가구들은 모두 궁중에서 입식 생활로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5. 소결

1920년 재건된 창덕궁 내전 일곽은 새롭게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회정당 일곽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원래 대조전은 국왕과 왕비의 침전이였으며, 회정당은 국왕의 거처이자 집무공간으로, 기록상 ‘편전으로 일 보던 곳’⁶¹⁾, 혹은 ‘여러 신하들을 한가로이 접견하는 곳’⁶²⁾이었다.⁶³⁾ 대조전은 재건 이전과 이후에서 극심한 기능 변화를 갖지 않았지만, 회정당은 편전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로 접견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게 되었다.⁶⁴⁾ 회정당은 좌

56) 한경희, 앞의 논문, p.73, pp.81-90

57) 박순관, 앞의 논문, p.56

58) 김명길, 『낙선재주변』, 서울: 중앙일보사, 1977, p.114

59) 이태희, 「일제시대 가구활용을 통해 본 주거실내공간의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p.19-20

60) 한경희, 앞의 논문, p.90

61) 『궁궐지 1: 경복궁, 창덕궁』, 서울: 서울학연구소, 1994, p.81

62)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권, 비교편, 정도

63) 최종덕, 『조선의 참 궁궐 창덕궁』, 서울: 눌와, 2006, pp.92-93

식의 편전으로부터 입식의 서양식 알현실로 그 기능이 바뀐 것이다.⁶⁵⁾

둘째는 창덕궁 내전 일곽에 새로운 공간이 추가되었고, 기존 공간의 재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공간으로는 근대적 설비라고 할 수 있는, 욕실, 화장실, 이발실 등이 추가되었다. 기존 공간의 재배치로는 찬시사무실⁶⁶⁾, 사장실, 식당, 숙직실 등이 내전의 전면에 놓이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찬시사무실, 사장실, 식당, 숙직실 등은 1917년 화재 이전에도 대조전과 회정당 주위에 존재했지만, 전각 주위에 별도의 건물에 놓여서 전각들과 복도로 연결하는 형식을 취했었다. 이 공간들이 1920년 내전 일곽의 재건을 통해서 눈 목(目)자 배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다.

4. 창덕궁 내전 일곽에 미친 외래 건축의 영향

3장에서 살핀 신문기사들에 따르면, 창덕궁 내전 일곽의 재건에서 실내장식은, 특히 가구는 프랑스식(불국식)을 가미한 것이며, 절충식 전각은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프랑스식 실내장식은 현재 남아 있는 가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회정당은 입식(서양식)의 ‘어거실 겸 침실’을 갖추었고, 대조전은 여전히 좌식(조선식)의 ‘어거실 겸 침실’을 갖고 있었다. 알현실과 같은 접객 공간은 화려한 서양식으로 꾸몄다. 이렇게 입식과 좌식이 공존하고 서양식 접객공간이 들어선 현상은 19세기말에 메이지궁전에서도 일어났었다. 곧, 일본의 천황과 황후의 공간으로는, 서양식 가구로 꾸며진 입식 ‘상어전(常御殿)’이 있는 동시에 다다미를 깔 ‘상어전’도 갖추고 있었다. 메이지궁전의 접객 공간인 내알현소(內謁見所)와 향연소(饗宴所), 후석간(後席の間) 등은 서양식을 따랐다.⁶⁷⁾

64) 이는 『순종실록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부터 1926년까지 순종 재세시(在世時)에 『순종실록 부록』의 회정당 관련 기사는 총 26건인데, 일본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접견한 일이 13건이고, 탄신일·신년 축하를 받은 일이 7건이며, 망곡례(望哭禮)를 행한 일이 6건이다.

65) 회정당에서 기거방식의 변화과정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회정당은, 원래 학문을 닦는 장소로서 전돌이 깔린 입식 공간이었다가, 17세기에 편전으로 전용됨에 따라 온돌과 마루의 좌식으로 바뀌었으며, 다시 20세기에 편전의 기능이 사라지고 입식으로 바뀌었다.

66) 찬시실은 순종이 기거하던 창덕궁과 고종이 기거하던 덕수궁에 있었던 기관이었다. 이왕직에서 파견한 찬시들은 각각 고종과 순종의 일상을 기록한 『日記』라는 자료를 남겼는데 이를 통해 찬시실은 고종과 순종을 통제하기 위한 기관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신명호, 「덕수궁 찬시실 편찬의 일기 자료를 통해본 식민지시대 고종의 일상」, 『장서각』, 제23집,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0년 4월, p.43, p.48)

이 밖에도 창덕궁 내전 일곽에는 외래 건축의 영향이 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그 중에서 두드러진 내용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4-1. 현관

현관의 개념은 1907년에 인정전을 개조공사에서 도입되었다. 이때는 인정문을 개조하고 그 명칭을 현관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창덕궁 회정당에는 돌출 형태의 현관을 두었다.<Fig.16> 그 형태와 기능은 일본의 구루마요세[車寄]에서 비롯하는 것 같다.<Fig.17>⁶⁸⁾



Fig.16 Porch of Huijeongdang



Fig.17 Porch of Meiji Palace (Source: reference 14)



Fig.18 Porch of royal household's office (Source: reference 9)



Fig.19 Porch of Huijeongdang in 1922 (Source: reference 13)

돌출 현관이 창덕궁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09년에 금천교 부근에 세워진 궁내부청사에서부터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에 실린 「궁내부청사신축평면도」 017과 018에는 ‘구루마요세[車寄]’라고 기입되어 있다.⁶⁹⁾

지금 창덕궁에는 회정당의 돌출 현관만이 남아 있지만, 이런 현관은 복원 이전의 낙선재 일곽에도 실제로 있었다. 회정당의 현관이 어차를 대기시키고 승하차하는 공간이었음은, <Fig.19>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⁷⁰⁾

67) 小澤朝江, 『明治の皇室建築』, 東京; 吉川弘文館, 2008, pp.65-80

68) 구루마요세[車寄]는 17세기 니조성(二條城)에서 독특한 의장요소로 독립하여 이후의 건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ishi, Kazuo and Hozumi, Kazuo,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A Survey of Traditional Japanese Architecture』, New York; Kodansha USA, 2012, pp.70-73

69) 『근대건축 도면집』(도면편), pp.42-45.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의 「창덕궁내전양관계획도」에도 ‘구루마요세[車寄]’라고 기입되어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p.92

4-2. 복도

1920년 창덕궁 내전 일곽의 재건 이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대조전과 회정당을 일직선상에 놓고 회정당의 동행각을 새로 만들고 복도로 연결하여 눈 목(目) 자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이는 ‘인정전 동행각으로부터 초원(稍遠)한 낭하(廊下)를 기절(幾折)하여’ 대조전에 이르렀다는 1922년의 기사⁷⁰⁾와 1935년에 항공 촬영한 창덕궁 사진(<Fig.20>)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Fig.20 An aerial view of Naejeon in 1935 (Source: reference 3)

현관에서 각 전각까지를 이어주는 복도의 도입은 일본 건축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현관과 복도의 도입은 내전의 내부 진입 동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동선 구조로 인하여 창덕궁 내전 일곽은 한 곳에서 출입하여 전체로 통할 수 있게 되었다.

4-3. 프랑스 양식 내부 공간의 이식



Fig.21 Huijeongdang



Fig.22 Huijeongdang

창덕궁 내전 일곽의 가구들은 일부 중국식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프랑스식이었고, 그 밖의 실내장식도 대부분 서양식이었다. 이는 화양절충식이었던 메이지궁전의 내부가 역시 프랑스식이었던 것과 관련하여 고찰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식 가구를 비롯한 서양식 실내장식은 모두 입식 생활을 위한 것으로, 궁중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Fig.21>, <Fig.22>, <Fig.24>)

70) 순종은 일본의 돌출 현관을 1916년에 메이지궁전을 방문했을 때에 경험하였다. '마차를 타고 입궐하여 어차기(御車寄)에서 하차한 뒤 기무라 식부관(式部官)의 인도로 천중간에서 휴식하였다'. 김점수,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과 잊혀진 여행』, 서울: 유니더스정보개발원, 2011, p.191

71) <매일신보> 1922년 4월 26일자 기사, <Tab.1>



Fig.23 Plum blossom patterned curtain box in Daejoj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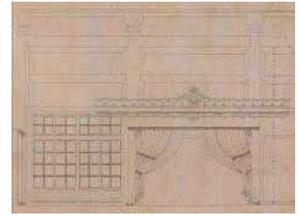


Fig.24 Interior detail drawing of Daejojeon

4-4. 기타 내부 공간의 양상

『근대건축도면집』의 도면 058과 도면 059는 재건된 회정당 ‘어거간실’의 내부 공간과 가구 배치를 보여준다. 서쪽에 ‘내낭하’를 두었고 동쪽에 ‘어경의실’과 ‘어거간 겸 어침실’, 북쪽과 남쪽에 각각 ‘베란다’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Fig.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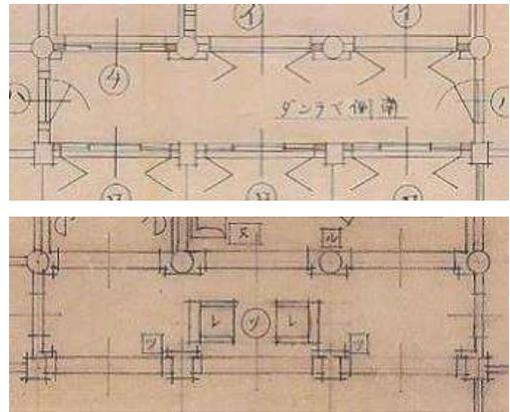


Fig.25 South verandas of Plan 058 and 059

이 두 도면에는 일본식 공간과 가구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중 베란다[ベランダ]는 서양을 거쳐서 일본에 도입된 공간개념이었다.⁷²⁾ 회정당의 전체 평면에서, 이 공간을 외부에 면한 복도 혹은 마루라고 볼 수도 있지만, ‘베란다’라는 도면표기와 ‘주괘(肘掛)의자(レ)’와 ‘환(丸)탁자(ソ)’로 미루어 보아서, 이 공간이 베란다는 의식하고 만든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Fig.26>)

이밖에 일본 전통 건축의 공간이 도입된 사례도 있다. <Fig.27>은 대조전 옆에 딸린 왕비의 ‘어거실’(<Fig.4>의 4)인데, 이 방의 서쪽에 수납공간이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은 오시이레[押入れ]라고 하는 일본식 벽장과 치가이다나[違棚]라고 하는 일본식 선반인데, 쇼인

72) 多田涼, 「近代日本<ベランダ>論」,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東京: 日本建築學會, 2010年 9月, p.485. 일본에서 베란다는 1858년 일본 개국 시에 방갈로 스타일의 주택과 함께 거류지에 수입된 후, 의양풍(擬洋風)·저택·문화주택 등으로 널리 퍼졌다. 베란다는 전과경로를 통해서 일본근대건축을 논한 책으로는 藤森照信, 『日本の近代建築』(上, 下), 東京: 岩波新書, 1993이 있다.

즈쿠리[書院造]의 중요한 특징들이다.⁷³⁾



Fig.26 Current south veranda in Huijeongdang
Fig.27 Elements of Japanese Shoin style in Daejojeon Area

4-5. 소결

1920년 창덕궁 내전 일곽은 절충식 전각으로 재건되었고, 조선식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곳곳에서 외래 건축 양식의 영향이 드러났다. 동선 구조와 건축 요소들에서는 일본 건축의 영향이 있었다. 먼저, 돌출 현관과 전각을 잇는 긴 복도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전 일곽은 모두 통하는 구성을 갖게 되었다. 또 내전의 실내에는 부분적으로 오시이레와 치가이다나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베란다와 프랑스식 실내 장식은 분명히 서양 건축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 당시 메이지궁전에서도 쓰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서양의 건축 양식들도 일본을 경유한 유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현장답사와 관련 도면들과 신문기사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서, 1920년 창덕궁 내전 일곽의 재건에 관하여 살폈다. 2장에서는 재건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3장에서는 완공한 뒤의 내전 일곽의 모습과 공간의 용도를 추정하였으며, 4장에서는 내전 일곽에 미친 외래 건축의 영향을 기술하였다. 그 중에서 창덕궁 내전 일곽에서 공간의 용도를 추정한 <Fig.4>은 특히 이 연구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덕궁 내전 일곽의 재건과정과 그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17년의 화재로 전소한 창덕궁 내전 일곽은, 일본인 영선과장의 지휘 아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이는 창덕궁 내전의 중건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내전 일곽은 한국의 전통적 외관을 유지하면서 근대식 설비를 갖추고 프랑스식을 가미한 절충식 전각으로 완성되었다. 이를 당시의 기사는 ‘조선 고래의 건축법’, ‘불국식’, ‘내외의 신건축’, ‘내선용

화’라고 표현하였다. 재건 공사에는 한국인 건축기사와 일본인 건축기사, 설비기사 등이 참여하였다. 재건에 사용한 재료는 이왕직의 협의와 총독부의 허락 아래 경복궁 전각의 부재를 헐어 사용했으며, 그 밖의 재료는 이왕직이 선택하였다.

대조전은 조선식 ‘어거실 겸 어침실’을 갖는 한편, 쇼인즈쿠리의 ‘어거실’도 가질 뿐만 아니라 서양식 커튼의 공간을 갖고 있어서, 한·일·양의 양식들의 혼재와 절충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회정당은 편전에서 접객공간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이때 온돌과 마루는 여전히 유지한 채 그 위에 카펫을 깔고 가구를 놓고 라디에이터를 설치하는 등, 좌식 공간 구조 위에 입식의 가구설비가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입식과 좌식의 문제가 양식들의 혼재의 문제와 중첩되어 있다.

회정당에는 이전에 없던 동행각과 현관을 만들고 이들을 복도로 연결하고 대조전 쪽으로 확장하여, 전체 내전 일곽 건물의 배치는 결과적으로 눈 목(目)자를 이루었다. 이로써 창덕궁 내전은 한 곳에서 출입하여 전체를 통할 수 있는 동선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때 내전 일곽에 새로운 공간이 추가되고 기존 공간의 재배치가 있었다. 재건한 내전 일곽에는 돌출 현관, 전각을 잇는 긴 복도, 베란다, 수납공간인 오시이레와 치가이다나 등과 같은 일본식 건축 요소들이 부가되었다. 이러한 동선 구조와 건축 요소들에 관해서는 차후에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가구와 실내장식은 프랑스 양식을 비롯한 서양식과 중국식으로 입식 생활에 맞게 꾸며졌지만, 서양식 실내공간은 일본의 경험을 거쳐서 유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1920년 창덕궁 내전 일곽 재건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근대기 궁중 생활양식의 변화와 일본의 간섭 아래 진행된 공간의 역할 변화를, 또 외래 건축 양식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질 것이다. 이 연구는 관련 자료와 도면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통해서 창덕궁 내전 일곽 재건의 의도나 목적을 추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지만, 공사를 직접 추진한 입장에서 기술한 문헌자료를 찾지는 못하였다. 또한 1917년에서 1920년까지 약 3년간에 걸친 재건 과정에서 방화설비, 채광, 통풍, 전기, 배수 등의 설비공사는 창덕궁 내전 일곽의 면모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이고 동인이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관련 기사를 통해서 그 개요를 언급하였을 뿐 관련 도면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비(不備)함들이 이 연구의 한계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재건

73) Nishi, Kazuo and Hozumi, Kazuo, 앞의 책, pp.74-75. 오시이레[押入れ]와 치가이다나[違棚]는 옷과 침구를 수납하고 책을 꽂기 위한 공간이다.

공사의 도면 자료와 문헌 자료 등과의 자세한 비교검토를 통해서, 또 재건공사 관련 인물들의 배경을 확정함으로써 이러한 한계가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다음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References

1. Han, Kyunghee, 「A Study on Interior Design of Palace in the Late Period of *Chosun*」,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 University, 1976
2. Kim, Myong-gil, 『Around *Nakseonjae* (樂善齋周邊)」, Seoul; Chung-ang ilbosa, 1977
3. Mainichi shinbunsha, 『Betsatsu ichiokunin no showashi nihon shokuminchishi 1 chosen (別冊1億人昭和史 日本植民地史 1 朝鮮)」, Tokyo; Mainichi shinbunsha, 1977
4. Fujimori, Terunobu, 『Nihon no kindai kenchiku (日本の近代建築)」, Vol. 1 and Vol. 2, Tokyo; Iwanami shinsho, 1993
5. Kim, Dong-uk, 「On the *Huijongdang*'s Diversion to *Pyonjon* of the *Changdeokgung* Palace in the Chosun Dynasty」,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3 No.1, Seoul; KAAH, June, 1994
6. 『Survey Report on the *Changdeokgung*'s *Huijeongdang*』,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2
7. Kim, Dong-uk, 『Palaces of Korea』, Seoul; Hollym, 2006
8. Kim, Chung-Dong, 「Western Elements of Korean Palace that are Introduced in the Modernization Period」,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History Spring Conference 2006』, Seoul; KAAH, May, 2006
9. 『*Changdeokgung* Album Owned by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in Japan』,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6
10. Choi, Jongdeok, 『*Changdeokgung*: The True Palace of *Joseon*』, Seoul; Nulwa, 2006
11. Suzuki, Hiroyuki ed., 『Fukugen shisho no shakaishi (復元思想の社會史)」, Tokyo, Kenchiku shiryō kenkyūsha, 2006
12. Gondo, Shirose, Yi Eonsuk trans., 『The Secret History of the Great *Han* Empire』, Seoul; Imago, 2007
13. National Museum of Korea, 『Gelatin Dry Plates in Custody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Royal palaces of *Joseon* (國立中央博物館所藏琉璃乾板宮闕)」,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2008
14. Osawa, Asae, 『Meiji no koushitsu kenchiku (明治の皇室建築)」, Tokyo; Yoshikawa koubunkan, 2008
15.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Modern Architectural Drawings (近代建築圖面集)」,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Jangseogak Archives, 2009
16. Lee Kang-Kun, 「Architectural Changes of *Changdeokgung* in modern period」,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University Museum Autumn Conference 2009*』, Seoul; KAUM, 2009
17. Woo, Don-Son et al., 『Tears of the Palaces, Silence of One Hundred Years』, Paju; Publisher Hyohyeong, 2009
18. Nishi, Kazuo and Hozumi, Kazuo, 『What is Japanese Architecture?: A Survey of Traditional Japanese Architecture』, New York; Kodansha USA, 2012
19. Cho, Jae-Mo, 『Palace, Talking about *Joseon*』, Seoul; Artbooks, 2012
20. Park, Soon-Gwan, 「A Study on the Modern Transformation of Royal Palaces during the Japanese Ruling Era」,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2013
21. Woo, Don-Son, Kee, Sehwang, 「A Study on the Remodeling of *Injeongjeon* Area at *Changdeokgung* Palace in 1908」,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 23, No. 2, Seoul; KAAH, April, 2014
22. <http://db.history.go.kr>

접수(2014. 4. 15)

수정(1차: 2014. 6. 2)

게재확정(2014. 6. 19)